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기는 것이 바로 죽지 않는 비결

남처럼 여기면 피가 썩게 되어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된다

원래 인간의 조상은 하나님

사람 속에 악한 마음이 왜 있는지, 선한 마음은 왜 있는지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원래는 사람의 조상이 하나님이었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마귀에게 점령당함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사람 속에 생긴 것입니다. 원래는 선한 마음이었었던 하나님의 영이 주체 영이었으나 마귀의 영이 6000년 전에 인간의 조상 하나님을 점령함으로 말미암아 악한 마음이 6000년 전에 사람 속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원 영원 전서부터 영원 무궁토록 살아 본 경험이 있는 하나님의 영이 바로 선한 마음이고 선한 마음은 영원 전서부터 존재했지만 6000년 전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마귀의 영이 점령함으로 말미암아 악한 영이 들어왔다는 이 사실을 이 세상 학자들이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학문의 뿌리는 바로 마음

사람이 왜 마음이 있는지, 사람이 왜 생각이 있는지, 이것도 모르면서 학문을 논하고 있으니, 그 학문은 바로 뿌리가 없는 학문이고, 학문의 정의도 모르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을 그려 놓은 것이 학문이고, 인간의 마음을 그려 놓은 것이 학문이므로 학문의 뿌리가 바로 마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이 어디서부터 왔는가를 모르다면 바로 학문의 뿌리를 안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학문이 바로 마음을 그린 것이므로 그 마음이 바로 마귀의 마음일 때는 마귀의 학문이 되고, 그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일 때는 바로 하나님의 학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세상에 학문이

있었다. 이 세상에는 종교가 없었다는 말씀을 시간 시간이 하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사람 속에 있는 '나' 라는 주체의식이 마귀의 영인고로 마귀의 학문과 종교는 있었지만 진리의 학문과 종교는 없었다고 이 사람이 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나' 라고 하는 주체의식이 마귀의 영인고로 마귀의 영으로 말미암아 피가 썩고, 마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늙고, 고통을 당하고, 죽는다는 것을 이 세상 사람들이 정확히 알고 그 죽음의 원인만 제거한다면 죽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죽는 원인을 아는 자가 진정한 학문을 아는 자

그러므로 죽음의 원인이 바로 '나' 라는 주체의식인고로 '나' 라는 주체의식을 제거만 하면 바로 죽을 수가 없고, 늙을 수가 없고, 병 걸릴 수가 없고, 고통을 당하려야 당할 수가 없다는 이 엄청난 사실을 이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고로 이 세상 사람들은 학문을 알지 못한다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것을 가르쳐 주고 알려 주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은 학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사람이 죽는 것은 늙어서 죽고, 병 걸려서 죽고, 차 사고가 나서 죽고, 재난에 의해서 죽는다고 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우연히 죽는다고 생각하고, 죽을 때가 돼서 죽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는 원인과 죽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죽는 것이 죽는 원인이 없이 죽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죽는 원인을 이 세상 학자들이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육심 중의 육심이 근심, 걱정

죽는 원인은 바로 다른 게 아니고 피



조희성 구세주께서 1992. 3월에 41대 미국 대통령 조시 부시의 초청을 받아 만찬회에 참석하였다. 당시 상원의원이었던 알폰소(Alfonse D'AMATO)와 기념촬영을 한 사진이다. 만찬에 참여한 많은 정치인들 중 유독 알폰소 상원의원은 조희성 구세주님을 하늘의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매우 반갑게 맞아주었고, 기념촬영도 하게 되었다고 한다.

가 썩어서 죽는데 피가 왜 썩느냐 하면, '나' 라는 주체의식이 사망의 영이요, '나' 라는 주체의식이 피를 썩게 하는 마음이고, '나' 라는 주체의식이 성경상으로 말하면 선악과요, '나' 라는 주체의식이 마귀인고로 그러므로 '나' 라는 주체의식이 생각을 조종만 하면 바로 피가 썩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근심 걱정만 하면 얼굴에 기미가 끼는 것은 근심, 걱정하는 순간 피가 썩고, 피가 썩으면 바로 썩은 피가 모세혈관에 축적되어 시커멓게 기미가 끼는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육심으로 되어지지 않는 일을 되게끔 육심 부리는 마음 그것이 바로 근심, 걱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육심 중의 육심이 근심, 걱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심 중의 육심이 근심,

걱정인고로 육심만 부리면 피가 썩는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육심 부리는 순간 피가 썩고, 피가 썩으면 늙고, 피가 썩으면 썩은 핏속에서 병균이 발생되어, 발생된 병균이 번식함으로 말미암아 중병을 일으켜서 사람의 생명까지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죽는 것은 "피가 썩기 때문에 죽는다."는 것이 정확한 답변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나이가 먹어서 늙는 것이 아니요, 바로 피가 썩어서 늙는다고 해야 맞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피가 썩어서 늙고 있는데 오늘날 이 지구 땅 위에 전 세계 만민들이 피가 썩어서 늙는다는 걸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가 썩음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되고, 잘못된 판단을 내려서 차 사고가 나서 죽기도 하고, 잘못된 판단을 내려서 재난에

의해서 죽기도 하고, 잘못된 판단을 해서 죽는 수가 많은 것입니다. 피가 썩어서 잘못된 생각을 하고, 피가 썩어서 잘못된 판단을 하는고로 죽는 그 원인은 피가 썩는 데 있는 것입니다.

피를 썩게 하는 것은 바로 마귀의 영이 되는, 사망의 영이 되는, 죽게 하는 마음이 되는 '나' 라는 의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평생 동안 '나' 라는 의식이 되는 사자귀신한테 끌려다니다가 마지막에 무덤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감로를 내리는 생미룩불을 만나야 죽지 않아

그 사자귀신을 죽이는 하나님의 영이 지금 나왔습니다. 불경에도 그 사자귀신을 죽이는 생미룩불이 나왔다고 쓰여 있는 것입니다.

첫째, 불경 열반경 8권 77페이지 "감로를 먹으면 죽지 아니하고 영생을 한다."

둘째, 열반경 9권 90페이지 "감로의 광명이 사람의 털구멍으로 들어가면 성불한다." 성불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슬을 내리는 자가 바로 생미룩불인 것입니다. 생미룩불을 만나기만 만나도 죽지 않는 것입니다.

셋째, 열반경 29권 289페이지 "한 사람이 부처를 이룰 때에 만나는 사람은 다 부처를 이룬다." 이제그대로 한 사람의 부처라는 건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이 되면 만나는 사람마다 다 하나님이 된다는 말입니다.

넷째, 열반경 29권 290페이지 "제상의 도(道)는 자유와 평등이 없고 내 것과 네 것이 다르고, 부처님 도는 자유하고 평등하고 하나가 되는 것이 모

든 사람의 정도(正道)나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구세주는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겨라." 하는 것을 가르치는 자가 구세주이며 생미룩불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기면 '나' 라는 주체의식이 없어지고로 나를 항상 버리라는 말이 성경이나 불경에 쓰여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기면 서로 미워하고 싸울 일이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려면 제일 먼저 자기 마음이 괴로운 것입니다. 이제그대로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기기만 하면 바로 미운 마음도 나오려야 나올 수 없고, 화가 나오려야 나올 수가 없고로 피가 썩으려야 썩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죽지 않는 비결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기는 철학이 죽지 않는 비결이요, 피가 썩지 않는 비결이요, 늙지 않는 비결이요, 행복하게 세상을 사는 영원무궁토록 사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말하는 자가 진짜 구세주인 것입니다.*

1992년 1월 14일 말씀 중에서
원현욱 기자 정리

웃으면서 전도합니다.
전도는 죽어가는 인류를 살리는 가장 선한 행위이자 구세주를 최고로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연재]不老不死 어떻게 가능한가



피의 순환

스트레스는 무조건적으로 피해야 할 공포스런 것이 아니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해야 할 도구이며, 잘 관리만 한다면 훨씬 좋을 수도 있는 것. 그것이 스트레스의 핵심이라는 것을 앞 호에서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하여야 수시로 찾아오는 스트레스를 "나에게 유익되고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따라 나오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번 글에서는 누구나 바라고 원하는 디스트레스(나쁜스트레스) 없는 유쾌한 삶의 비결, 그것을 알아보도록 하자.

첫째, 자존심(自尊心)을 버리자

자존심이란, 남에게 굽히지 아니하고 자신의 품위를 스스로 지키는 마음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현대 세상이 가 여찌 자존심을 철저히 고수하면서 살 수가 있는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에서 자존심을 내세우면 인간 관계가 급냉각되고 불편스러워질게 불 보듯 뻔하다. 세상에는 사람과 사

람 사이에 수많은 다양한 인간관계가 형성되어 있다. 그야말로 별의별 사람과 조건, 상황이 다 있는데 하늘같은 내 자존심을 지키는 것은 혼자 살지 않으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주위를 둘러보면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결핍하면 신경질을 내고, 못마땅해 하고, 미워하고, 주먹질하고, 발길질하고, 급기야는 살인까지 저질러 인생을 망친다.

나쁜 스트레스의 지존(至尊)이라고 할 수 있는 자존심을 조금만 굽히면 내 주위가 밝아지고, 내 삶이 편안해져 건강과 행복이 지름길로 찾아들 것이다. 그래서 자존심을 버리기 전에 과연 이만한 일로 내 삶의 질과 건강, 행복과도 맞바꿀 만한 것인가를 순간 재빠르게 생각해 보는 것이 자존심을 제어하는 마인드 컨트롤의 기법이 될 것이다.

둘째, 자기중심주의(自己中心主義)를 버리자

자기중심주의란, 자기 또는 자기가 소속된 집단 이외의 일에 대하여 무관

심한 태도나 방침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과거 권위주의와 독선이 만연된 사회에서는 이것이 어느 정도 보편적으로 인정되었다. 하지만 오늘날처럼 인본주의의 세계화와 지구촌 인류가 하나의 공동체라는 시대정신, 다원화되

자존심을 버리자 자기중심주의에서 벗어나자 욕심을 버리자 아무리 좋은 것도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고 복잡한 인간관계와 조직사회에서 그것은 구시대의 유훈에 가깝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에서 자기중심주의를 고집하는 사람이나 집단은 절대로 발전할 수 없고 존립할 수도 없다. 인간관계나 사회생활에 미숙한 사람이나 집단이 흔히 저지르기 쉬운 실수로 반드시 버려야 할 나쁜 스트레스의 대(大)왕격이라 할 수 있다.

맑은 선진국 사회, 높은 문화 선진

국과 행복지수 높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고품격의 공중도덕과 질서 의식을 갖추어야 주변에 스트레스 요인이 크게 줄어들어 훨씬 살기 좋아진다. 인간 누구나 자기중심주의를 과감히 버리고 이타주의(利他主義)를 먼저 생각하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될 때,

우리 사회는 나를 먼저 생각하는 자기중심주의를 고집할 때보다 곱질 나온 인간미가 넘치는 이상사회(理想社會)가 실현될 것이다.

셋째, 욕심(慾心)을 버리자

욕심이란, 분수에 넘치게 무엇을 탐내거나 누리려고 하는 마음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여기에서 분수란 말을 세세히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분수란 말 속에 "사물을 분별하는 지혜, 자기

신분에 맞는 한도, 사람으로서 일정한 계 이를 수 있는 한계"라고 풀어 쓰고 있다. 인생을 의미있게 살고자 하는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의미심장한 격언이다. 과연 우리는 얼마만큼 자신의 분수를 알고 그에 맞게 살고 있는가를 자문자답해 볼 필요가 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 생사화복(生死禍福)의 관문으로 들어가는 통로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실패한 인생의 탓이야 기에는 반드시 분수를 모르고 과욕을 부리고 살았던 탓이라고 솔직히 고백하고 있는 만큼, 여기에 우리가 지향해야 할 고귀한 삶의 방향과 목적하는 큰 지혜가 숨겨져 있다. 삶의 모든 면에서 이 분수를 알고 행한다면 큰 낭패와 불행에 빠지지 않게 되리라 본다.

인생을 짧다고 말할 하지만, 그러면 서도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악착같이 욕심부리고 사는 것이 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의 삶의 행태인가! 욕심 때문에 치러야 할 대가가 너무나도 크다는 것을 왜 우리는 잊고 사는가? 육체와 정신이 욕심의 큰 바윗덩이에 평생 눌러 오그라들고 짓눌려서 고달프고

병들어 늙고 이내 죽어버린다. 이 얼마나 처참한 인생의 말로(末路)인가. 우리는 나쁜 스트레스의 대(大)신하 격인 욕심을 할 수만 있다면 늘 버리고 살도록 노력해야 한다. 기왕지사 세상을 살 바에 분수에 맞게 욕심을 제어하여 인생을 신선처럼 유유자적 하며 오래오래 무병장수하는 삶을 사는 것은 어떠한지.

명심해야 할 것은, 욕심을 버리는 데도 지혜와 노력과 인내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바로 수양(修養: 몸과 마음을 닦아 품성 지식 도덕성 따위를 높은 경지로 끌어 올리는 행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나쁜 스트레스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양이 뒤따르지 않으면 모두가 임시방편적인 것에 불과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절감하도록 하자.

지금까지 스트레스의 3대 주범에 해당하는 요체를 간략하게 짚어 보았다. 사실 모든 술한 스트레스가 이 3대 주범에 의해 발생한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본다. 이처럼 일단 그것을 깨달았다면 벗어나는 것은 각자 본인의 몫이다. 돌파구를 찾는 게 급선무다. 옛 선승이 이르기를 "소를 물가로 억지로 끌고 갈 수는 있지만, 물을 먹일 수는 없다"고 했다. 여러분! 선택과 행동은 각자가 해야 한다.*

김주호 기자